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 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범한 사람은 아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이곳에서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 그리고 금 오십 세겔을 탐을 내어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이 훔쳐온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실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간을 돌로 치고 또한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가 소유했던 가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간에게 가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아간이 훔쳐간 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쳐진 것'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진멸하다' 즉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표준새번역 성경은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물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장7절에서도 "진멸 시킬 물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 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우리가 성경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u>온전히 바친 모든 것</u>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u>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u>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7장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서원과는 달리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서원한 것에 값을 매겨 무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8절과 29절의 말씀에는 무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과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온전히 바쳐진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이 죽은 이유도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즉 다시 말씀 드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에 해당하는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며 그 "온전히 바쳐진 것"에 욕심을 내어 그 물건들은 가지고 온 아간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다 죽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물건을 탐을 내어 가지고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어 훔치거나 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간의 사건에서 우리는 좀더 근본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간은 "온전히 바친 것"에 탐을 낸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어 반드시 죽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죽으리라(창2:7)"는 명령은 에덴에서부터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법칙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롬5:12). 그렇기 때문에 아간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당연한 죄인들인데 예수 그

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무르기'를 한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지를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야 마는 죄인일 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 다 아간과 같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갈3:13).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반드시 죽게 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전 1:8-9)."

두 번째는 믿음을 떠나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율법 아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죄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10:26-27)."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딤전 2:4).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교훈이나 삶의 처세 등을 얻는 것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